

중조간 려객렬차 운행, 외신 관심 끌다



12일, 단동-평양 국제려객렬차가 평양역에 도착한 후 한 승객이 려차에서 내리고 있다. / 신화넷

6년 만인 2026년 3월 12일, 중국과 조선 사이를 오가는 국제려객렬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북경-평양, 단동-평양 로선이다. 외신들도 이 소식을 주목했다. 로

이터통신은 "이는 조선이 대외 인적 교류를 늘리려는 신호"라고 해석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량국 인적 왕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선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12일, 단동-평양 국제려객렬차가 평양역에 도착하고 있다. / 신화넷

첫날인 12일 저녁, 단동발 95번 려차가 평양역에 도착하자 조선 주재 중국대사 왕아군과 조선 철도성 국장 김용호가 직접 마중나왔다. 왕대사는 "이번 국제려객렬차의 개통은 량국 우호 교류와 실질적 협력에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려차에서 내린 한 젊은 여성 승객은 "려차가 아주 순조로웠고 경험도 좋았다."며 "다시 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나이 지긋한 여성 승객은 "려차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며 "량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의 소식에 따르면 운행 일정은 북경-평양 로선 주 4회(월·수·목·토), 단동-평양 로선은 매일 운행한다.

프랑스통신은 중국은 조선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려차 운행 재개가 조선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

다봤다. 한국 《조선일보》도 "중국인 관광객 류입으로 조선이 연간 2억달러 정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만 해도 조선은 찾은 외국인 관광객 9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문제는 아직 일반 관광객이 탈 수 있는냐이다. 현지 려행사 관계자들은 "관광 비자는 아직 제한적이고 주로 조선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만 리용할 수 있다."며 "관광 재개 시점은 5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평양국제마라톤대회(4월)도 올리는 취소됐다.

단동의 한 려행사는 "3박4일 단동-평양 코스, 3,000원짜리 상품을 준비해놓았다."고 귀띔했다. 북경의 한 려행사는 6월부터 평양·묘향산·개성·금강산을 포함한 7~8일 일정의 관광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4인용 침대를 리용할 경우, 1인당 가격을 7,338원으로 정해놓았다.

/ 관찰자넷

조선 장거리포병부대, 화력 타격 훈련 진행

김정은 현지서 참관

조선중앙통신의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부대는 14일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에는 600밀리미터의 초정밀 다련장(多管) 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화력 타격 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였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김정은이 화력 타격 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는 모습이다. / 신화넷



영국 언론:

미국 석유회사 이란 사태로 '뜻밖의 황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미국의 석유 생산 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금융시보》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미국 석유 업체들이 올해 600억달러가 넘는 '뜻밖의 황재'를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자원건설업체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올해 미국 원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할 경우 미국의 석유 생산 업체들은 여기서만 634억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중동지역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셰일오일(頁岩油) 업체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사업이 전세계에 분포된 대형 석유 기업들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미국의 엑슨모빌(埃克森美孚)과 셰브론(雪佛龍), 유럽의 BP(英國石油), 쉘(壳牌), 토탈에너지스(도달에너지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해안지역에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호르무즈해협의 원활한 통행이 막히게 되면 이들 기업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신화넷

미국 학자:

미국은 극도로 잔혹하고 무정하다

50년 제재로 3,800만명 사망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이며 시카고대학 교수인 존 미어샤이머는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정부가 전세계에서 살육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를 통해 무고한 민중을 잔혹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극도로 잔혹하고 무정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미어샤이머는 연설에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랜싯》(柳葉刀)이 2025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1971년부터 2021년까지 50년 동안 미국이 전세계에서 시행한 제재로 인해 약 3,800만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제재를 통해 현지 민중에게 '잔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그들을 기아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나는 미국을 고귀한 국가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삼성전자 파업 위기, 반도체 공급망 비상

삼성전자 로동조합(로조, 공회)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로조가 성원 6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무려 93.1%가 찬성했다.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로조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팽백 반도체공장의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업이 2~3주 지속되면 삼성전자의 손실만 34억달러에서 68억달러에 달할 것이라 분석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칩(存儲芯片) 제조사이다. 이 회사의 생산 차질은 한국 반도체산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게 전



2024년 7월 10일, 한국 용인에서 삼성전자 로조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신화넷

문가들의 지적이다. 드플래시(NAND 閃存),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메모리 칩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파업까지 겹치면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지고 가격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6세대 HBM 랑산에 성공해 미국 엔비디아(英偉達)에 공급하고 있다. 만약 이 중요한 시기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회사의 로동자와 회사간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는 한국 종합주가지수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장주'(龍頭股)이며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이다.

《금일아시아》는 "삼성전자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신화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中华圆梦 万马奔腾

富 民 文 明 和 谐 自 由 公 正 法 治 爱 国 敬 业 信 善 友 善

河北蔚县 隗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